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연준 올해 금리 인하 베팅 줄여... 견조한 소비 지출
- WSJ: 주식이 하락하면 항우울제 복용이 늘어난다

[미국 생활]

- WSJ: 하버드대 기부금, 작년에 15% 줄었다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 WSJ: 뉴욕 뉴저지 항만청, 뉴욕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 건설
- Bloomberg: NJ 교통기관, 교통 개선 차원에서 32억 채권 판매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건수 개선... 다가구 주택 건축은 감소

[에너지]

- Bloomberg: 미 전력 소비 수요 급증하고 있다

[인공지능]

- WSJ: 반도체 장비 제조업계에 AI 열풍 끝났나

[글로벌 경제]

- WSJ: IMF “세계 경제 연착륙하지만 무역 장벽 커진다”
- Bloomberg: 신흥국 통화 강세 움직임... 중국의 시장 지원으로
- Bloomberg: 중국 철강 생산량과 원유 정제 계속 부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VS, 최고 경영자 새로 임명했다
- Bloomberg: 구글, 딥마인드에 Gemini 팀 추가
- Bloomberg: P&G, 뷰티 부문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 부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 Dials Back Fed-Cut Bets on Solid Data: Markets Wrap

월가, 연준 올해 금리 인하 베팅 줄여... 견조한 소비 지출

- 견조한 소매 판매 보고서가 나오면서 트레이더들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조치에 대한 베팅을 줄였다. 이에 미 국채 시장은 힘을 잃었다.
-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빠른 향후 금리 인하에 의구심을 키우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스와프 계약은 연준이 11월과 12월 회의에서 0.42% 포인

트 금리 인하 폭 예상을 반영했다.

- S&P500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후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어제 넷플릭스는 예상 이상으로 구독자를 확보해 주식 랠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 금요일 오전 현재 거의 9% 상승한 상태다.
- 견조한 소매 판매 전에는 강한 일자리 보고서와 예상외의 소비자 인플레이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When Stock Prices Fall, Antidepressant Prescriptions Rise
주식이 하락하면 항우울제 복용이 늘어난다

-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볼스테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주식이 12.8% 떨어졌을 경우 평균적으로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0.42% 증가했다. 주식 인하 폭이 6.4%로 적었을 경우에도 우울증 처방 건수가 0.21% 증가했다.
- 연령대 그룹을 비교한 결과 46세부터 55세까지의 그룹의 처방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주식 변동에 더 민감하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적고 채권 비중이 많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Donations to Harvard Drop 15% in Tumultuous Year
하버드대 기부금, 작년에 15% 줄었다

- 하버드 대학의 작년 기부금이 거의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기부자들은 학교 측의 교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처리에 불만이 있어 기부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학교는 올해 6월 말에 끝나는 1년간 기부금이 11억7천만불로 전년 동기의 13억 8천만불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 하버드 대학과 전국의 대학들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교내의 친팔레스타인 데모에 휩싸였다. 학교 측은 이 사태에 대한 대응 때문에 고액 기부자의 반발에 직면했다.

WSJ 기사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WSJ: Port Authority of NY, NJ to Build New Terminal at Newark Airport 뉴욕 뉴저지 항만청, 뉴어크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 건설

-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Newark Liberty 국제공항의 현 터미널B를 교체해 국제 터미널을 새로 짓고, 새로운 택시 도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 항만청은 80억 달러 규모의 라과디아 공항의 재건 플랜과 190억 달러의 케네디 공항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항만청은 내년부터 2, 3년간의 계획 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NJ Transportation Agency Raises \$3.2 Billion in Muni Sale Surge NJ 교통기관, 교통 개선 차원에서 32억 채권 판매

- 뉴저지 정부 교통기관인 뉴저지교통국 트러스트 펀드 공사는 도로, 다리, 대중교통 개보수 공사의 재정 지원 차원에서 32억달러의 채권을 매각했다.

- 현재 뉴저지 트랜짓 승객들은 관련 서비스 중단과 혼란으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매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권 발행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잠재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 뉴저지주의 이번 채권 발행은 주의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일반 채권 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Fitch의 A 등급이라고 밝혔다. 해당 등급은 S&P500 글로벌 등급 A- 등급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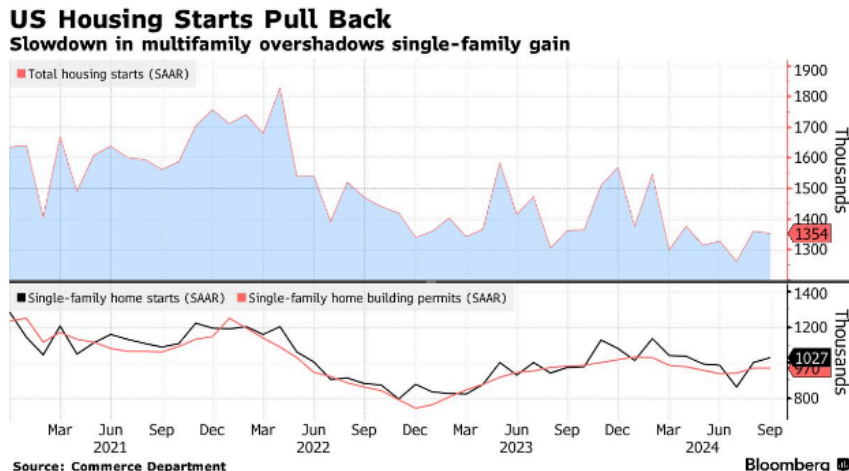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Ease on Decline in Multifamily Construction

미 주택 착공 건수 개선... 다가구 주택 건축은 감소

- 단독 주택 건설이 상승하고 다가구 건축은 감소하는 가운데,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개선되었다.
- 연방정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착공은 0.5% 감소한 연율 135만채로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2.7% 상승한 103만채로 나타나 5개월 이래 가장 강했다. 반면, 다가구 건축은 9.4% 감소해 4개월 이래 가장 낮았다.
- 한편, 향후 주택 상황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건물 건축 허가 건수는 2.9% 하락한 연율 143만채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허가 신청 건수는 0.3% 늘어난 97만채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Unexpected Surge in US Power Demand Draws Comparison to WWII Era**미 전력 소비 수요 급증하고 있다.**

- 미국의 전기 사용이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5년 동안 일부 지역의 경우 15% 더 증가할 것이라고 에너지 컨설팅사 Wood Mackenzie는 밝혔다.
- 구체적으로 전력 수요 상승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다. 남동부와 뉴욕의 경우 제조 활동에 따른 전력 소비가 증가했다. 일리노이와 버지니아 등은 데이터 센터 확충 때문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운송과 난방에 따른 수요 상승 때문이다.
- 이 같은 전력 수요의 빠른 상승은 미 산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2차세계대전 당시의 제조업 부흥으로 수요가 60% 상승한 시대와 비견된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AI Honeymoon Is Over for Chip Equipment Industry
반도체 장비 제조업계에 AI 열풍 끝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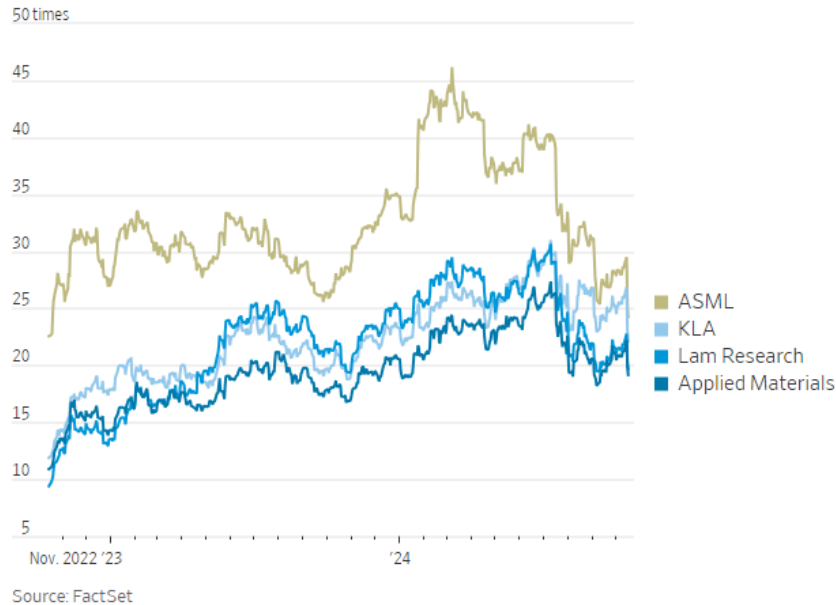
- AI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엔 불충분하다. 엔비디아는 서버 AI 프로세서에서 올해 수익이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3분기 순주문(net bookings)은 26억 유로(28억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반도체 제조 장비는 몇몇 대형 업체가 지배한다. 인텔은 데이터 센터와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금 보관을 위해 자본 지출이 올해 8%, 내년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삼성의 반도체 관련 지출도 올해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I 열풍과 별개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시장은 상황이 복잡하다. PC 수요 감소, 불균형한 스마트폰 판매, 저조한 자동차 시장 때문이다.
-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의 주가는 2022년 말 ChatGPT 출시 이후 올해 7월 10일까지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지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의 12개월 누적 수익은 9% 감소했다.

- Semiconductor Advisors의 Robert Maire는 많은 투자자와 경험 부족한 분석가들이 AI의 성공을 반도체 시장 전체의 지표로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다.

Capital Gains

Share price as a multiple of forward earnings, past two years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MF Sees Soft Landing for Global Economy, But Weak Growth Ahead as Trade Barriers Rise IMF “세계 경제 연착륙하지만 무역 장벽 커진다”

- 오늘 금요일, IMF 총재 Kristalina Georgieva 가 “인플레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성장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인플레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부진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쌓인 부채는 무서운 수준이다. IMF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7월에는 올해 3.2%, 내년 3.3% 성장을 예상했었다.
- Georgieva는 높은 무역 장벽이 성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더 많은 관세 부과를 공약하고 있다. Georgieva는 글로벌 긴장을 당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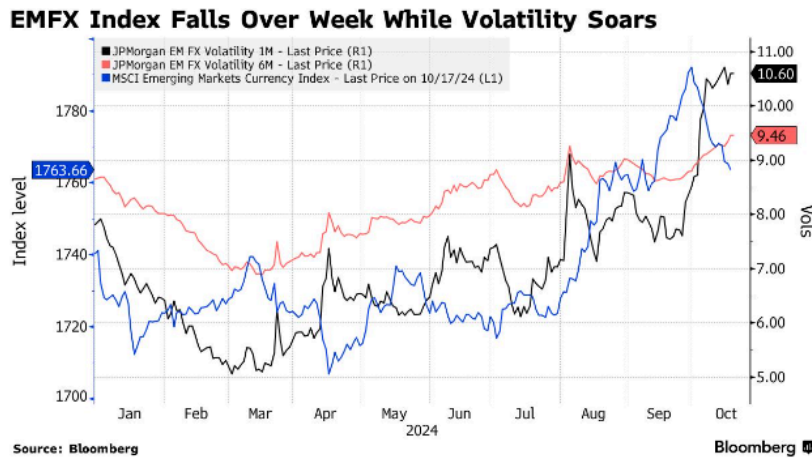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Emerging-Market Currencies Find Strength on China Support

신흥국 통화 강세 움직임... 중국의 시장 지원으로

- 이머징 마켓 지역의 통화들이 중국 인민은행의 시장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힘을 얻고 있다.
- MSCI의 이머징 마켓 통화지수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 남아프리카의 통화인 란드가 주도했다.
- 물론 이달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시티그룹 전략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 자산에 리스크 요인으로 미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전략가들은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선거기간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선진국에 대응하는 실제 금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금리를 0.25% 낮추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차입 비용을 중립 수준으로 계속 나타내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s Steel Output and Crude Oil Refining Continue to Slump

중국 철강 생산량과 원유 정제 계속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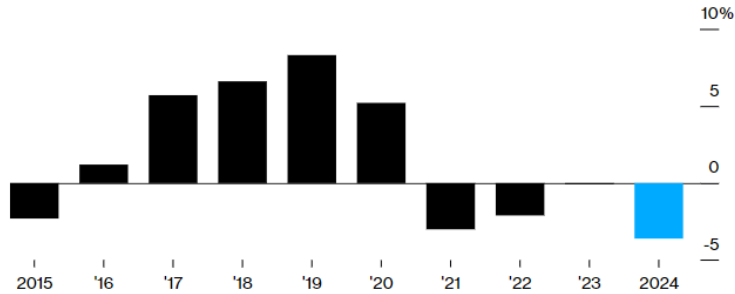
- 중국 철강 생산과 원유 정제가 계속 부진하다. 반면, 다른 주요 원자재 생산량은 증가했다. 오늘 금요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철소는 올해 7

천707만 톤을 생산했다. 9개월 동안 생산량이 3.6% 감소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원유 정제도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설비가 늘어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인 5천873만 톤까지 감소했다. 연간 생산량은 1.6% 감소했다.
- 부동산 위기와 탈탄소화 때문에 제철과 원유 정제는 중국에서 가장 실적이 나쁜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9월 중국 석탄 생산량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또 다른 호황을 시사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알루미늄 생산량도 증가했다.

Chinese Steel Production

Percentage growth YoY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ote: 2024 figure is year-to-date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VS Names David Joyner as New Chief Executive
CVS, 최고 경영자 새로 임명했다**

- CVS가 Karen Lynch의 뒤를 이어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David Joyner를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 CVS는 올해 재무 실적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했고, 어제 목요일 기준 올해 주가가 19% 하락했다. 최고 경영자 교체는 회사 해체 옵션처럼 이사회의 전략 검토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 Joyner는 CVS와 그 전신이 되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초기엔 Aetna와 Caremark에서 근무했었고, 2007년 CVS와의 합병 후에는 두 회사의 통합 작업에 참여했다. 이사회는 Joyner가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즉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CVS는 Aetna의 메디케어 보험 플랜에 투자했지만, 의료 손실률(보험료에서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약 95.2%로 재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Joyner는 Aetna의 실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tock-price performance

CVS Health



WSJ 기사

Bloomberg: Google Adds Gemini Team to DeepMind in AI Streamlining Push**구글, 딥마인드에 Gemini 팀 추가**

- 구글이 Gemini AI 비서 앱 개발팀을 딥마인드 연구소로 옮겼다. Sunar Pichai 구글 CEO는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연구하는 회사의 다양한 그룹을 통합하고 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구글은 지난 2년간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기타 스타트업에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검색 엔진 시장에도 신규 경쟁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구글은 또한 연방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구글은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11월에는 온라인 광고 판매 기술 독점 혐의에 대한 재판의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G Reports Weak Sales Growth on Lower Beauty Demand
P&G, 뷰티 부문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 부진

- Procter & Gamble은 최소한의 가격 인상, 스킨 케어와 베이비 케어 같은 주요 부문의 약세로 2분기 연속 매출 성장이 부진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SK-II의 약세가 스킨 케어 뷰티 부문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 P&G CFO인 Andre Schulten은 “중국과 중동의 약세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즈니스 핵심은 견고하다.”라고 말했다. 중동은 전쟁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됐으며, 중화권에서 유기적 매출은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 P&G는 다양한 신체 부위를 위한 바디 워시와 면도기 같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Schulten은 전동 칫솔과 같은 고가 품목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IMF 총재 "저성장과 많은 부채로 세계 미래 어려울 것" "경제적 충격 분명 오고 예상보다 빠를 수도"...무역 축소와 전쟁도 우려 IMF, 세계 공공부채 연말까지 100조달러 돌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저성장과 많은 부채라는 '지독스러운'(unforgiving) 조합으로 미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성장률이 오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졌지만 "공공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